

성균관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제3차 교학 정기회의 정리본

회의 일시	2024. 10. 28. (월) 15:30
회의 장소	600주년 기념관 3층 제3회의실
회 차	제3차 교학정기회의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학사정책국장, 학사정책국 차장
참여자	자연과학캠퍼스 부총학생회장, 학사정책국장 (학교 본부) 교무팀, 학부대학/사범대학행정실, 학생지원팀 행정 직원

1. 군복무 학점 이수

총학생회: 본교의 군복무 학점 강좌는 대다수의 과목이 균형교양에 치중되어 있어 학우들의 실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이에, 학우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설 과목을 다양화하는 것을 요청함.

학교 본부: 군복무 특성상, DS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울 것이 우려됨. 하지만 웹상으로만 코딩이 가능한 과목 등 개설 가능한 DS과목 검토해보겠음. 성균논어의 경우, 협조 요청을 드렸으나 현장 실습이 필수적이라 군복무학점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 같음. 학부대학은 학생들이 군복무 중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최대한 많은 교수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 다만, 군복무학점제는 교수님들의 수업운영 상 시험 출석과 평가방식 등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2. 전공 수업 확대

총학생회: 교원 수 부족과 강의실 부족으로 전공 정원을 증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초전공과목을 아이캠퍼스 사전제작 과목으로 전환하여 더욱 다양한 전공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요청함.

학교 본부: 학교 본부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일치하는 방향성임. 현재 본교는 온라인 수업을 확대하면서 교수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수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임. 구체적으로 플립러닝과 PBL 수업을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더불어 사전제작 온라인 수업을 확대해가고 있음.

무제한TO의 경우 현재 시범 운영 중임. 매년 전체 학부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수강 신청과 관련된 불만사항이 다수 접수되었음. 이에, TO 제한을 완전히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무제한TO를 도입하게 되었음. 하지만 운영 상의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음. 시험 강의실 마련이나 몇몇 교수님들은 해당 방안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시기도 함.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며 무제한TO를 확대할 예정임.

3. 자유전공계열 관련 우려점

총학생회: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의 경우, 선이수 과목을 이수한다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음. 이때, 학과별로 인원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으면 인기 학과의 경우 기존 전공생들의 TO와 관련된 문제, 소수 학과의 경우 학생 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계열제를 운영하고 있는 본교의 중도이탈률은 공학계열 12.4%, 자연과학계열 14.2%, 사회과학계열 6.1%, 인문과학계열 6.3%로 이미 타교를 상회하는 수준임. 자유전공계열이 신설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우려됨.

학교 본부: TO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의 기초 전공 수업을 온라인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기초 전공 과목들을 온라인으로 개설하여 TO를 늘리면,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의 전공 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많은 학생들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 경우, 다른 모집단위의 정원을 대폭 줄였고, 그렇지 않은 전공의 경우, 정원을 소수만 줄였으며, 진입불가학과(의약, 스포츠, 예술, 첨단학과)는 줄이지 않았음.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중도이탈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LC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잘 되어 있고 학생들이 가장 소속감을 느끼는 게 LC이기 때문에 통합 LC에 배정하여 5개의 계열이 모두 섞이도록 논의 중이며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4. 신설 수업 방식

총학생회: 2024학년도 1학기 신설된 수업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총학생회에서 실시하였고, 해당 결과를 공유하였음. 6-Module 제도의 경우 잘 모르고 있는 학생이 많았음. PBL 수업의 경우, 각자 강의를 듣고 익힐 시간이 있고, 다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온라인의 장점과 현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장점을 합쳐 학우들에게 느껴지는 장점에 대해 전달함. 영상 자체 문제 혹은 강의 수강 후 바로 질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 역시 전달함.

학교 본부: 모듈 C와 D의 경우에는 16주 수업을 8주에 몰아서 수업하는 8주 압축 수업인데, 현재까지는 대학원 한정으로 운영 중임. 빈 시간에 인턴과 자기개발 시간으로 본인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집중 수업으로만 운영되면 교육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함. 이를 검토하여 학부 수업에도 적용할지 논의 중임.

현재 전체 수업 중 33%가 PBL과 플립러닝으로 진행 중임.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의도했던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걱정되는 바임. 온라인 수업의 내실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음. 전달주신 내용 반영하여 수업 운영 방식 논의에 참고하겠음.